익산 '도시재생 활력' 젊은 도심 변신

도시재생 신규사업 2곳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
중앙동·익산역 서편·남부시장 등 재생 본격화

익산시는 중앙동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KTX익산역 서편 송학동과 남부시장 인화동 일원 등 2곳이 선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KTX익산역 서편 송학동 19만 3000㎡ 일원에 총 461억원(재정보조 167억, 부처연계 102억, 지자체사업비 4억, 공공기관(LH) 175억, 민간 2억, 기금 11억)이 투입되며 공공기관인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안길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커뮤니티가든(쌈지공원, 마을주차장 등)이 추진되며 공동체일자리플랫폼과 공동텃밭, 원예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LH는 청년과 근로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 80호와 노인층의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실버안심주택 45호를 건립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시장주변 인화동 일원은 11만4500㎡를 대상으로 총 889억 원(재정보조 142억, 부처연계 509억, 지자체사업비 16억, 공기업 5억, 민간 209억, 기금 8억)이 투입된다.

이 사업지구는 지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역사·문화 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근대역사 재현하기, 남부시장일대 상권회복을 위한 솜리상생 상회와 문화공방 조성,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도심 내 소규모 공원조성 등이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된 중앙동 일대는 20억 원을 투입해 익산역과 국민은행 사거리에 야간경관과 녹지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는 '문화이리로' 특화거리는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돼 오는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헌율 시장은 "기존 사업지구를 포함해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는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과 시민들을 위해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세금 잘 낸 군산시민 의료비 우대

군산시, 지역 의료기관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세금을 잘 낸 군산시민은 병원에서도 의료비를 우대 받게된다.

군산시는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과 시민들을 위해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군산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써 적극 협조해 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A형 간염 환자 밀접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군산시, 역학조사 거쳐 선정

군산시가 A형간염 환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수는 23명이었지만 지난 9월까지 126명이 발생했다.

밀접접촉자는 A형간염 환자의 동거인 등으로 정기적으로 함께 음식을 섭취하거나 화장실을 공동 이용한 사람과 성 접촉자 중 역학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를 시행해 항체가 없는 경우 백신을 접종하고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올해 A형간염 발생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안정성이 확인 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특히 음식점 영업주와 조리 종사자는 안전한 식재료 구입은 물론 조리과정 중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화장실 사용 후와 음식 조리전에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A형간염 환자와 유증상자는 식품취급을 절대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A형간염 신고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환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의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2차 감염예방은 물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형간염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면역을 가질 수 있으며 주로 오염된 손과 물, 음식,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사람의 입을 거쳐 감염되므로 △음식물 익혀 먹고 안전한 물(끓인 물 또는 병에 든 생수 섭취) 마시기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해외 홍보 확대
몽골기자협회와 언론교류 추진

군산시가 관광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몽골기자협회와 언론교류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외 홍보 확대를 위해 몽골기자협회와 언론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3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몽골기자단 10명, 통역 1명, 한국기자협회에서 2명이 참가한다.

군산시는 몽골기자단과의 관광, 농업, 산업 전반에 걸친 교류를 통해 군산의 관광을 해외에 홍보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이번 교류를 추진했다.

몽골기자단은 근대역사박물관과 조선은행, 새만금과 태양광 풍력 재생단지 등을 취재하며 군산의 역사와 새만금, 에너지, 관광 등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알릴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 기자단과의 교류를 통해 군산 관광이미지를 해외에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양국간 재생에너지, 농업, 도시개발 교류 등 산업 발전방향의견 교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관광 공간재창조 공모사업 선정

영유아 맞춤형 놀이공간 조성

익산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2019 문화관광 공간재창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센터 앞 마당에 영유아 맞춤형 작은 집 4채와 전통놀이 바닥화 3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외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유아의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고, 조성된 영유아 맞춤형 작은 집과 전통놀이를 활용한 실내활동 위주의 놀이 환경에 벗어나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220회 임시회 기간(10.28~11.8)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29일 영등동 소재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울타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안아줄 수 있는 청소년 쉼터와 같은 시설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도 같은 날 익산시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업체인 푸르메FS를 방문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보호 실태 및 시설현황을 파악했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Rice-10 가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익산시의 쌀 가공산업 육성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유기동물보호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서 여청과, 제7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29일 2층 소통실에서 2019년 제7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여성청소년과·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외부위원 전라매일 조경환 기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 원불교 중앙총부 최미숙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심곡사 정 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4명의 위기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 상처로 남아 자존감 상실 및 추후 비행 예방을 위하여 자격증취득지원, 의류·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추가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논의했다.

유택기 여성청소년과장은"어려운 환경에 처한 위기청소년들이 본인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헌수 익산서장은 "요즘 사회적 관심사인 가정·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사소한 분야에서부터 치밀한 노력과 애정으로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